

베드로와 사도들의 선교무지

◎ 선교는 깨닫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I. 베드로의 선교 무지

(행 10:11-16)

- 11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통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 12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 13 그 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 14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 15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 16 이런 일이 세 번 있는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1. 철저한 유대인 (행 10:13-16)
2. 계시를 이해하지 못함 - 큰 보자기 안의 각종 짐승 (행 10:11-16)
3. 고넬료의 초청에 당황함 (행 10:28-29) - 사도행전 10장에 이를 때까지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행 10:28-29)

28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29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4.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함
5. 성령강림을 이해하지 못함 (행 1:8)
6. 부활과 선교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함

II. 베드로의 설교와 그의 태도

1. 성령 충만은 했으나 여전히 선교를 깨닫지 못함

(행 2:39)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2. 아직 복음의 범위를 깨닫지 못함 (행 1:8)

Ⅲ. 고넬료의 초청과 선교의 깨달음

1. 고넬료의 삶과 그의 설명 - 베드로의 깨달음

(행 10:34-35)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35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두 번째 오순절의 경험

(행 10:44-48)

44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45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신 사실에 놀랐다.

46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47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48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3. 마침내 베드로가 침례를 주고 선교를 시작하다.

Ⅳ. 베드로에게 여전히 남은 유대인의 모습

1. 사도행전 11장과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깨우치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로부터 면책을 받는다.

(갈 2:11-13)

11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 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 12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 13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2. 유대인의 전통의 옷을 벗고 복음의 자유함을 얻기에는 시간이 걸림

V. 베드로의 사도적 위대성

1.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고백 (마 16:16)
2. 하나님의 여전한 사도 (행 11장)
→ 예루살렘 교회를 깨우고, 안디옥 교회를 고려하다.
3. 예루살렘 회의와 선교선언 (행 15:9-11)

(행 15:9-11)

- 9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 10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매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 11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이방인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동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함.

4. 만민 제사장의 원리

(벧전 2:9)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VI. 성령 충만이 선교 충만은 아니다.

1. 선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비밀)과 섭리를 베드로처럼 깨닫는 것이다.
2. 성도와 교회가 선교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성경적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3. 유대인 크리스천들 - "율법과 열심 있는 자들" -은 "복음과 이방인", 즉 "선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4. 성령 충만은 선교를 위한 것이다.